

사회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420호 2006년 4월 12일 수요일

보육원서 간식 먹다 질식 “원장·교사에 100% 책임”

법원 판결 보육원에 맡겨진 유아가 교사가 준 과일 조각을 먹다 기도에 걸려 식물인간이 됐다면 보육원 원장과 교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부는 11일 보육원에서 사과를 먹다 질식사 식물인간이 된 김모(3)군과 김군 부모가 보육원 교사 김모(여·38)씨와 원장 김모(여·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2천9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육교사는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줄 경우 유아에게 쉽게 삼키도록 잘게 썰어주거나 먹는 과정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원고 김군이 질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 원장도 보육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영 말아톤’ 金 광주 학생 사실은 실격 처리 ‘해프닝’ 대구 장애인 대회... 격려차원 수여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으로 보도(본보 5일자 20면)됐던 자폐아가 경기운영 미숙으로 사실은 입상에 실패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광주 S중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 배영 50m에 출전해 맨 앞서 끝인자점에 도착해 1등에 오르는 듯 했다. 대회 주최측은 그러나 이군이 결승선 터치하지 않았으며, 실격 처리됐다.

이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1등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주최 측은 실격처리된 것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결국 여분의 금메달을 이군에게 수여했다. 입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격려 차원의 메달이었던 셈이다.

이군은 다음날 문제의 금메달을 가지고 등교했다. 학교 측은 이군이 금메달을 딴 것으로 ‘오인’해 학교 내에 축하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칭찬합니다’ 코너에도 이 사실을 올렸다.

S중은 그러나 이군에 대한 광주시교육감상 표창 요청을 위해 입상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S중 관계자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오해”라며 “이번 일로 이군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최광식 前 경찰청 차장 인사청탁·뇌물수수 ‘불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불똥’이 전임지인 전남지방경찰청으로 튀었다. 특히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남청 소속 일선 경찰서장을 포함한 일부 경찰관들이 연루된 의혹이 속속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광식 전 차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경찰관 3~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중 광주 북부경찰서 이모(50) 총경은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특수 2부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최 전 차장이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8월28일부터 2005년 1월19일 사이에 인사청탁을 했거나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이 짙은 핵심 간부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경찰과 일반인 4~5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전남경찰 ‘좌불안석’

경정·총경급 3~4명 조사...1명은 사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으며, 최 전 차장 외에도 2~3명의 경찰 간부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전남청 인사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이 총경 이외에도 P·Y 등 총경급 3~4명, H·S 등 경감·경정급 1~2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청 관계자는 “최 전 차장과 관

위직들의 인사청탁이 연쇄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브로커 윤상림씨와 관련해 광주 서부경찰서 하모(53) 경정이 구속됐고, 목포경찰서 간부 부인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가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면서 윤상림-최광식으로 이어지는 파문이 전남경찰청 내에서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또 국민의 정부 시절 전남경찰청 고위간부들을 매개로 다른 간부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가졌으며, ‘전남 인맥’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 전 차장과 관련한 인사비리 후폭풍이 어디까지 불어 닥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남청이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분청 보고를 수차례 누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인택시 정기 점검
광주시는 11일 법인택시 운송조합과 합동으로 비엔날레 야외주차장에서 상반기 법인택시 정기 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택시 점검에서는 번호판 불법 개조·전자요금기 등 불법 부착물·차량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인조 택시강도 어제 새벽 광주 평동산단

경찰의 ‘국민생활안전확보 100일 계획’ 특별경계 속에 택시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3번도로에서 30대로 보이는 2인조 강도가 택시기사 김모(3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신가동에서 2명을 태워 평동산단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 중 한명이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170cm 키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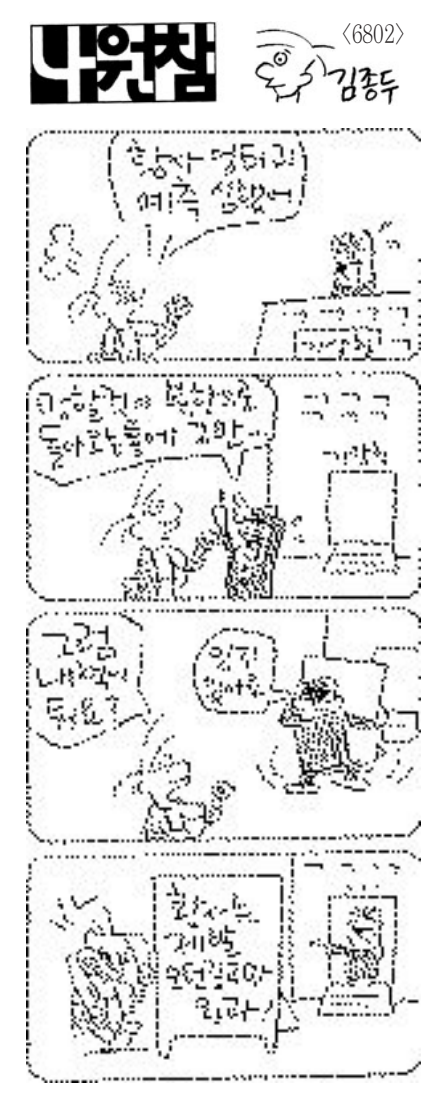
공무원들과 거액 도박

구례 주재기자 2명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공무원들과 거액의 도박을 한 구례 주재 D일보 오모(42) 기자와 판문을 제공한 H일보 전모(36) 기자를 상습도박 및 도박 방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6월

구례지역 식당과 모텔 등을 돌며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5천만원대의 속칭 ‘쌈’ 도박을 한 혐의를, 전씨는 3천600여만원의 판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주재기자들의 도박사실은 이들에게 도박빚을 진 공무원 2명의 폭로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구례군은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 31명 부정 발급

서울 서초경찰은 11일 자격 미달자들에게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세계태권도연맹 심판부 간부 유모(34)씨를 구속하고 연맹 관계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틀로부터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31명 중 23명을 불



연세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채 | 총 353명 | 3534명
문의 (062)366-4220

대학병원 시설과장 자살
11일 오전 6시에 광주시 남구 방림동 L아파트 화단에 C 대학병원 시설과장 신모(53)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주은 신용카드로 아내에 금반지 선물
○...김에서 주은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선물한 50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때문에 경찰서 행.

○...11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나주시 남평읍 모철물점 앞에서 남모(27)씨의 지갑을 주운 뒤,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광주시 서구 양동 금은방에서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했다고. ○...지갑을 잃어버린 남씨는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금은방 CCTV에 찍힌 얼굴 때문에 딜미.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받아야 건강!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십시오!

엘케이그린(주)는 냉·온수배관 및 난방배관 세정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엘케이그린은 최고의 세정 기술을 통해 고객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주요 서비스:
- 냉·온수배관 세정
- 난방배관 세정
- 배관 누수 점검 및 보수
- 배관 교체 및 설치
- 배관 청소 및 방역

문의처: 엘케이그린(주) (02) 513-0700

세계최초 공기과학 병·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를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요금을 집안전력보다 아껴주세요!

3년 무이자 대출
3년 무이자 대출
3년 무이자 대출

공기과학 병·난방기
100% 친환경 에너지
100% 친환경 에너지

공기과학 병·난방기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유지비를 1/3로 낮추고 유해가스를 0%로 줄여줍니다. 또한, 공기과학 병·난방기는 3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공기과학 병·난방기 (02) 531-4651